

##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과 외식행동과의 관련성 분석

권 순 형

한양여자대학 식품영양과

###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Eating-out Behaviors of Industrial Workers

Soon-Hyung Kwon

Dept. of Food & Nutrition, Hanyang Women's College, Seoul, Korea

####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eating-out behaviors of 643 male/female industrial workers. The results of the study was summarized as follows.

1. The frequency rate of eating-out was higher for male than female, college graduates than high school graduates, high income earner than low income earner, and unmarried than married( $p<0.05$ ).
2. Average cost for eating-out was higher for male than female, for high educated and high income earner than low educated person. Age, married or not, personal health conditions and BMI, however, didn't make any difference in the average cost for eating-out.
3. Reasons for eating-out was very different due to gender, age, degree of education, income rate, married or not, BMI( $p<0.05$ ) but basically eating-out was due to get together with friends or colleagues. Also, people who thought they were not in good health answered that they did not eat-out in any conditions. Overweighted people ate out more often than normal or under-weighted people.
4. The method in gathering information about eating-out was different according to the level of education and whether married or not. On the other hand, gender, age, income rate, personal health condition and BMI did not make a big difference in its method. However, most people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gathered information from people around them, such as friends/colleagues.
5. Tast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deciding the actual eating-out restaurant among the respondents and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married or not also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 $p<0.05$ ).
6. Besides personal health conditions and BMI, all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ncluding age mad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electing the most frequently visited restaurant.
7. Besides the personal health conditions, the transportation vehicle was different due to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income rate, married or not and BMI.

As seen from the results, the eating-out behaviors mostly differed due to gener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earching for a new eating-out market, the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he trend of the target customers has to be analyzed to activate the eating-out industry. In addition, the need for highly nutritional food with low calorific value has to be emphasized along with the taste.

Key words : general characteristics, eating out behaviors, workers.

본 논문은 한양여자대학 2001년도 교내 연구비에 의해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Soon-Hyung Kwon,  
Tel: 02-2290-2180, E-mail: shkson@yahoo.co.kr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의 신장에 따라 사회 환경과

생활양식이 크게 변화되었으며 식생활도 많은 영향을 받아 일상식의 국제화 및 외식화 등의 현상을 볼 수 있다(Young & Lanforten 1985). 식생활에 대한 욕구는 사람의 생명유지나 생리기능을 충족하는 건강증진이란 식 기능 이외에 즐거운 식사, 맛있는 식사를 요구하게 되어 식생활의 레저화 및 관능화 등의 경향을 나타내며 여러 환경과 작용하여 새로운 식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더욱이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식생활에 대한 개념도 변화하여 식품의 관능적 가치를 영양적 가치보다 높게 보는 경향이 있다(Park 1996, Diva 1982, Shannon & Paks 1980, Yperman & Vermeersch 1979). 관능적 요소 중에서도 인간의 맛에 대한 개성은 개인의 식품 선택과 관계가 깊고, 또한 식품에 대한 기호성, 음식의 섭취량 등에 영향을 주어 그 민족의 독특한 식습관과 식문화를 형성하게 된다(Niels et al 1977, Fetzer et al 1985). 우리나라의 외식업계는 대기업과 다국적 외식업체들이 활발한 영업 활동을 함으로써 국내외의 다양한 음식, 식사법과 음식점이 소개되고, 이에 따라 국민의 외식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김석영 등 2002, 유춘희 2002, 김태희 2001). 이렇게 외식업소가 변창하는 이유는 소비패턴의 변화, 생활의 레저화, 도시화의 진전, 젊은 연령층의 증가,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 주부의 시간가치 상승, 핵가족 및 독신가구의 증가, 경제력 상승으로 인해 외식을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그 이용 계층과 목적이 다양해지면서(노희경 1999, 원용희 1998, 모수미 1994) 이들의 다양한 요구에 외식업계가 재빠르게 부응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URL address). 화려하고 이국적인 분위기를 갖춘 외식업체의 등장, 다양한 메뉴의 개발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빠르게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며(모수미 등 1986), 영양보완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있어 식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노정미·유영상 1989). 이상과 같이 현대사회에서 일반인들은 물론 대학생들의 외식 빈도의 증가는 불가피함을 알 수 있다. 여러 연구에서 외식을 하는 사람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외식시 이용하는 음식점(김희선 2001)과 외식횟수가 달라지며(류은순 등 1989) 식당 선택의 기준(김혜영 등 2001, 모수미 1989)에도 차이가 있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령층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다각적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에 위치한 한 산업체 근로자들의 일반적 특성과 외식행동과의 관련성 분석을 통해 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외식 산업 분야 육성과 경쟁력 있는 외식 산업 진출에 도움이 되는 기초적 자료를 얻고자 수행되었다.

## II. 조사대상 및 방법

###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2002년 4월 29일부터 5월 4일에 걸쳐 경기도 소재 산업체 근로자 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 조사 방법 및 내용

자료수집은 선행연구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조사대상자로 하여금 직접 기록하게 하여 불완전한 응답자를 제외한 총 643부를 자료처리에 사용하였다.

조사내용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과 외식행동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일반적 사항

성별, 연령, 교육정도, 소득수준, 결혼여부,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 키, 체중 에 관한 항목이 포함되었다. 비만도 평가는 키와 체중을 이용하여 체질량지수(BMI, body mass index)를 산출하였으며 BMI가 23 이상인 경우 과체중, 18.5~23 정상체중, 18.5 미만은 저체중으로 분류하였다.

#### 2) 외식 행동

외식행동으로는 월평균 외식비, 외식동기, 외식정보, 외식시 업소 선택기준, 외식시 즐겨 먹는 음식의 종류, 외식시 주로 이용하는 교통수단 등으로 구성하였다.

#### 3. 자료처리방법

모든 자료의 분석은 SPSS P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조사결과는 빈도와 백분율,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과 외식행동과의 관련성은 Pearson's  $\chi^2$ -test로 검정하였다.

## III. 결과 및 고찰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남자가 258명(40.2%), 여자가 385명(59.8%)이었고 연령은 21~30세 사이가 가장 많았으며(75.3%), 20세 미만이 13.2%, 31세 이상은 11.5%였다. 교육정도는 73.7% 정도가 고졸이었으며 26.2%가 전문대 이상 졸업자였다.

한달 수입은 80~140만원(43.9%)이 가장 많았고, 80만원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Group	N(%)
Sex	Male	258(40.2)
	Female	385(59.8)
Age(years)	<20	85(13.2)
	21~30	485(75.3)
	31<	74(11.5)
Education	High school	475(73.7)
	College≤	169(26.2)
Income (1,000won/mo)	<800	252(40.4)
	800~1,400	274(43.9)
	1400≤	98(15.7)
Marital status	Unmarried	513(79.7)
	Married	131(20.3)
Self-assessment of health	Healthy	252(39.1)
	Normal	362(56.2)
	Weak	30( 4.7)
BMI	<18.5	94(15.3)
	18.5~23	410(66.7)
	23<	111(18.0)

미만인 조사대상자도 40.4%나 되었으며, 조사대상자의 15.7%는 140만원이 넘었다. 결혼 여부는 79.7%가 미혼이었으며,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는 56.2%가 보통이라고 했으며 39.1%는 건강하다고 답하였다. 체질량지수(BMI)는 66.7%가 정상 범위에 속하였으며 18%가 과체중이었다.

**2. 외식행동**

조사대상자의 외식행동은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외식 빈도는 조사대상자의 28%가 일주일에 한번 이하로 외식을 하고 있었으며 조사대상자의 72%가 일주일에 2번 이상 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외식비는 5만원 이하가 조사대상자의 36.2%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5만원에서 10만원(35.8%), 10만원에서 150만원(15.3%) 등의 순이었다. 외식 동기는 친구/동료와의 만남을 위해서가 56.1%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이 가족 모임(12.8%)으로 나타났다. 외식에 관한 정보 취득 경로는 주변 사람들인 친

**Table 2. The behaviors of eating out of the subjects**

Behavior of eating out	Frequency	Percent
Frequency of eating out during 1 weeks		
≤ 1 times	181	28.0
2 times	149	23.1
3 times	153	23.7
4 times ≤	163	25.2
Monthly expenditure(1,000won) for eating out		
≤ 50	234	36.2
50~100	231	35.8
100~150	99	15.3
150~200	47	7.3
200≤	35	5.4
Reason of eating out		
to solve an empty stomach	51	8.7
to have business	17	2.9
to have health food	7	1.2
to meet friends	330	56.1
to have anniversary	44	7.5
to meet family	75	12.8
to have enjoy	46	7.8
etc	18	3.1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eating out		
Newspaper/magazine	24	3.8
TV/radio	27	4.3
Friends	561	89.2
DM/leaflet	17	2.7
Selection criteria of restaurant for eating out		
Prices	45	9.0
Taste	285	57.0
Atmosphere	37	7.4
Sanitation/clean	26	5.2
Image of restaurant	44	8.8
Convenience facilities	31	6.2
Service	22	4.4
etc	10	2.0
Kinds of visiting restaurant frequently		
Korean food	432	73.5
Japanese food	4	0.7
Western food	23	3.9
Chinese food	18	3.1
Flour-based meals food	77	13.1
Fast food	18	3.1
Family restaurant	14	2.4
Hotel restaurant	2	0.3

Table 2. Continued

Behavior of eating out	Frequency	Percent
Traffic means for eating out		
Car	149	24.8
Taxi	38	6.3
Bus	92	15.3
Walking	299	49.7
Subway	15	2.5
etc	9	1.5

구나 동료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89.2%로 아직 구전에 의한 홍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를 살펴보면 TV/라디오 4.3%, 신문/잡지 3.8%, DM/leaflet 2.7%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시 업소 선택기준 맞이 57.0%

로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식시 주로 방문하는 식당은 한식으로 73.5%로 가장 많이 선호하였고, 다음으로 분식 13.1%의 순으로 나타났다. 외식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도보가 49.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가용이 24.8%, 버스 15.3%의 순으로 이용하였다.

### 3. 일반적 특성과 외식 빈도와의 관련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1주일 동안의 외식 빈도와의 관련성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 외식을 1주일에 4번 이상 하는 사람이 유의하게 많았으며, 대졸 이상인 조사대상자가 고졸인 조사대상자보다 외식 빈도수가 높은 사람이 많았다. 또한 월소득 수준이 140만원 이상인 조사대상자들은 140만원 미만인 조사대상자들 보다 외식빈도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기혼인 경우보다 미혼인 조

Table 3.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frequency of eating out during one week of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1 times	2 times	3 times	4 times ≤	p-value
Sex					
Male	60(23.3)	54(20.9)	55(21.3)	89(34.5)	0.000
Female	120(31.2)	93(24.2)	98(25.5)	74(19.2)	0.000
Age(years)					
<20	26(31.0)	17(30.2)	14(16.7)	27(32.1)	0.548
21~30	131(27.0)	114(23.5)	121(24.9)	119(24.5)	
31<	23(31.1)	16(21.6)	18(24.3)	17(23.0)	
Education					
High school	145(30.6)	108(22.8)	119(25.1)	102(21.5)	0.001
College≤	35(20.7)	39(23.1)	34(20.1)	61(36.1)	
Income(1,000won/mo)					
<800	94(37.3)	54(21.4)	50(19.8)	54(21.4)	0.000
800~1,400	59(21.5)	70(25.5)	75(27.4)	70(25.5)	
1,400≤	21(21.4)	19(19.4)	22(22.4)	36(36.7)	
Marital status					
Unmarried	132(25.7)	111(21.6)	125(24.4)	145(28.3)	0.002
Married	48(36.9)	36(27.7)	28(21.5)	18(13.8)	
Self-assessment of health					
Healthy	66(26.3)	59(23.5)	59(23.5)	67(26.7)	0.338
Normal	101(27.9)	86(23.8)	86(23.8)	89(24.6)	
Weak	13(43.3)	2( 6.7)	8(26.7)	7(23.3)	
BMI					
<18.5	32(34.0)	18(19.1)	24(25.5)	20(21.3)	0.118
18.5~23	121(29.5)	96(23.4)	95(23.2)	98(23.9)	
23<	20(18.0)	27(24.3)	27(24.3)	37(33.3)	

p-value by Pearson's  $\chi^2$  - test.

조사대상자들의 외식빈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한편, 연령,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 및 체질량지수(BMI)는 외식빈도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체질량지수가 23 이상인 조사대상자의 경우 체질량지수가 18.5 미만인 조사 대상자들보다 외식 빈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잦은 외식은 비만의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4. 일반적 특성과 외식비와의 관련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월 평균 외식비와의 관련성은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월평균 외식비가 20만원 이상인 조사대상자는 여성보다 남성이, 5만원 이하인 조사대상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유의하게 많았다.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점은 대졸 이상은 5~10만원대가 35.5%로 가장 많았고 고졸은 5만원 이하가 37.8%로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보아 교

육수준이 높은 경우 외식으로 인한 지출 경비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수입이 140만원 이상인 조사대상자의 경우 외식으로 인한 지출 경비가 월평균 수입이 80만원 미만인 조사대상자보다 유의하게 많았다.

#### 5. 일반적 특성과 외식동기와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과 외식동기와의 관련성은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외식동기는 남성은 친구·동료와 어울리기 위해 44%,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22.2%, 공복을 채우기 위해서 12.4%를 차지하였다. 여성은 친구, 동료와 어울리기 위해 63.8%, 생일, 결혼기념일 등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8.5%,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서 6.6%로 남성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한편, 남·여 모두 건강식을 위해 외식을 한다고 한 경우는 각각 1.7%와 0.9%로 가장 낮게 나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monthly expenditure(1,000won) of eating out of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50	50~100	100~150	150~200	200 ≤	p-value
<b>Sex</b>						
Male	74(28.7)	106(41.1)	38(14.7)	20( 7.8)	20( 7.8)	0.008
Female	158(41.0)	124(32.2)	61(15.8)	27( 7.0)	15( 3.9)	
<b>Age(years)</b>						
<20	37(44.0)	29(34.5)	10(11.9)	5( 6.0)	3( 3.6)	0.505
21~30	174(35.9)	176(36.3)	75(15.5)	36( 7.4)	24( 4.9)	
'31<	21(28.4)	25(33.8)	14(18.9)	6( 8.1)	8(10.9)	
<b>Education</b>						
High school	179(37.8)	170(35.9)	75(15.8)	35( 7.4)	15( 3.2)	0.001
College≤	53(31.4)	60(35.5)	24(14.2)	12( 7.1)	20(11.8)	
<b>Income(1,000won/mo)</b>						
<800	116(46.0)	71(28.2)	40(15.9)	15( 6.0)	10( 4.0)	0.000
800~1,400	85(31.0)	114(41.6)	42(15.3)	23( 8.4)	10( 3.7)	
1,400≤	25(25.5)	37(37.8)	14(14.3)	8( 8.2)	14(14.3)	
<b>Marital status</b>						
Unmarried	176(34.3)	188(36.6)	84(16.4)	40( 7.8)	25( 4.9)	0.338
Married	56(43.1)	42(32.3)	15(11.5)	7( 5.4)	10( 7.7)	
<b>Self-assessment of health</b>						
Healthy	91(36.3)	92(36.7)	40(15.9)	19( 7.6)	9( 3.6)	0.361
Normal	129(35.6)	132(36.5)	53(14.6)	25( 6.9)	23( 6.3)	
Weak	12(40.0)	6(20.0)	6(20.0)	3(10.0)	3(10.0)	
<b>BMI</b>						
<18.5	33(35.1)	30(31.9)	17(18.1)	9( 9.6)	5( 5.4)	0.183
18.5~23	153(37.3)	153(37.3)	59(14.4)	28( 6.8)	17( 4.2)	
23<	37(33.3)	35(31.5)	18(16.2)	9( 8.1)	12(10.8)	

p-value by Pearson's  $\chi^2$  - test.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reason of eating out of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to solve an empty stomach	to have business	to have health food	to meet friends	to have anniversary	to meet family	to have enjoy	etc	p-value
<b>Sex</b>									
Male	29(12.4)	7(3.0)	4(1.7)	103(44.0)	14( 6.0)	52(22.2)	18( 7.7)	7(3.0)	0.000
Female	22( 6.3)	10(2.8)	3(0.9)	224(63.8)	30( 8.5)	23( 6.6)	28( 8.0)	11(3.1)	
<b>Age(years)</b>									
<20	20(16.3)	3(3.8)	none	47(58.8)	2( 2.5)	1( 1.3)	9(11.3)	5(6.3)	0.000
21~30	32( 7.3)	10(2.3)	7(1.6)	262(60.0)	39( 8.9)	44(10.1)	33( 7.6)	10(2.3)	
31<	6( 8.8)	4(5.9)	none	18(26.5)	3( 4.4)	30(44.1)	4( 5.9)	3(4.4)	
<b>Education</b>									
High school	38( 8.9)	12(2.8)	4(0.9)	256(60.0)	34( 8.0)	38( 8.9)	29( 6.8)	16(3.7)	0.000
College≤	13( 8.2)	5(3.2)	3(1.9)	71(44.9)	10( 6.3)	37(23.4)	17(10.8)	2(1.3)	
<b>Income((1,000won/mo)</b>									
<800	27(11.5)	5(2.1)	3(1.3)	143(60.9)	21( 8.9)	8( 3.4)	16( 6.8)	12(5.1)	0.000
800~1,400	15( 6.1)	9(3.7)	2(0.8)	136(55.5)	15( 6.1)	41(16.7)	24( 9.8)	3(1.2)	
1,400≤	8( 9.1)	3(3.4)	1(1.1)	35(39.8)	8( 9.1)	25(28.4)	5( 5.7)	3(3.4)	
<b>Marital status</b>									
Unmarried	45( 9.6)	14(3.0)	6(1.3)	299(63.9)	31( 6.6)	24( 5.1)	35( 7.5)	14(3.0)	0.000
Married	6( 5.1)	3(2.6)	1(0.9)	28(23.9)	13(11.1)	51(43.6)	11( 9.4)	4(3.4)	
<b>Self-assessment of health</b>									
Healthy	18( 7.8)	6(2.6)	3(1.3)	144(62.6)	9( 3.9)	28(12.2)	17( 7.4)	5(2.2)	0.259
Normal	30( 9.2)	10(3.1)	4(1.2)	167(51.1)	32( 9.8)	46(14.1)	25( 7.6)	13(4.0)	
Weak	3(10.7)	1(3.6)	none	16(57.1)	3(10.7)	1( 3.6)	4(14.3)	none	
<b>BMI</b>									
<18.5	9( 9.7)	2(2.2)	1(1.1)	54(58.1)	10(10.8)	5( 5.4)	10(10.8)	2(2.2)	0.001
18.5~23	25( 6.8)	9(2.5)	5(1.4)	216(59.0)	29( 7.9)	41(11.2)	27( 7.4)	14(3.8)	
23<	14(13.9)	5(5.0)	1(1.0)	40(39.6)	4( 4.0)	27(26.7)	8( 7.9)	2(2.0)	

p-value by Pearson's  $\chi^2$  - test.

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외식은 주로 교제를 위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외식의 동기가 주로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한다고 보고한 권순형 등(1999), 박금순 등(1996), 한명주(1992), 노정미 등(1989)의 연구와 비슷한 경향을 보인 반면, 김두진(1994)의 끼니해결을 위해서가 65.6%, 친구 만날 때가 55.7%, 모임이 34.4%의 결과와 황혜선(1991)의 배고픔의 해결이 37.0%, 습관적으로가 34.0%의 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조사대상자가 처해진 환경과 상황에 따라 외식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연령은 20세 미만은 친구·동료와 어울리기 위함이 58.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공복을 채우기 위해서(16.3%)와 즐기기 위한(11.3%) 것이었고, 건강식을 위한 외식

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30세도 친구·동료와 어울리기 위함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가족과 함께(10.1%), 기념일(8.9%)순이었고, 건강식을 위한(1.65%) 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31세 이상에서는 가족과 함께(44.1%)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으로 친구·동료와 어울리기 위함이 26.5%, 공복을 채우기 위함이 8.8%순이었고 마찬가지로 건강식을 위한 외식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외식 동기가 유의하게( $p<0.01$ )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육수준 등 나머지 일반적 특성에서도 친구·동료와 어울리기 위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건강식을 위한 외식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결혼한 경우는 가족과 함께 식사하기 위한(43.6%) 외식이 친구·동료와 어울리기 위한(23.9%)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한 분포의 차이( $p < 0.01$ )를 보였다. 한편, 유의한 분포의 차이는 없었으나 본인이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건강식을 위해 외식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외식은 특별한 행사 혹은 친구들과의 교제를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뿐 건강식을 위해 외식을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아직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앞으로 외식관련 업체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건강식 관련 외식산업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체질량 지수와 관련하여 BMI가 23이상인 조사대상자들 중 13.9%가 공복을 채우기 위해 외식을 한다고 응답하는 반면, BMI가 정상 범위인 조사대상자들과 18.5 미만인 조사대상자들의 경우에는 공복을 채우기 위해 외식을 하는 경

우가 각각 6.8%, 9.7%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비만도 따라 외식 동기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비만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복감을 채워줄 수 있는 저열량 외식 산업 분야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6. 일반적 특성과 외식에 관한 정보와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과 외식에 관한 정보와의 관련성은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교육수준이 대졸 이상인 조사대상자들에게 있어서는 외식에 관한 정보를 친구/동료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86.1%였으며 신문, 잡지를 통해서 얻는 경우가 6.1%, DM/홍보물로부터 얻는 경우가 5.5% 순인 반면 고졸인 조사대상자들에게 있어서는 친구/동료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는 경우가 90.2%, TV/radio를 통해 얻는 경우가

Table 6.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ources of information about eating out of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Newspaper/ magazine	TV/radio	Freinds	DM/Leaflet	p-value
<b>Sex</b>					
Male	15(6.0)	10( 4.0)	217(86.5)	9(3.6)	0.085
Female	9(2.4)	17( 4.5)	341(90.9)	8(2.1)	
<b>Age(years)</b>					
<20	5(6.0)	3( 3.6)	74(89.2)	1(1.2)	0.484
21~30	14(3.0)	21( 4.4)	424(89.8)	13(2.8)	
31<	5(7.0)	3( 4.2)	60(84.5)	3(4.2)	
<b>Education</b>					
High school	14(3.0)	23( 5.0)	416(90.2)	8(1.7)	0.011
College≤	10(6.1)	4( 2.4)	142(86.1)	9(5.5)	
<b>Income(1,000won/mo)</b>					
<800	9(3.7)	11( 4.5)	220(90.2)	4(1.6)	0.761
800~1,400	9(3.4)	14( 5.3)	235(88.3)	8(3.0)	
1,400≤	5(5.2)	2( 2.1)	88(90.7)	2(2.1)	
<b>Marital status</b>					
Unmarried	14(2.8)	18( 3.6)	454(90.8)	14(2.8)	0.014
Married	10(7.9)	9( 7.1)	104(82.5)	3(2.4)	
<b>Self-assessment of health</b>					
Healthy	8(3.3)	7( 2.9)	219(90.5)	8(3.3)	0.063
Normal	14(3.9)	16( 4.5)	318(89.6)	7(2.0)	
Weak	2(6.9)	4(13.8)	21(72.4)	2(6.9)	
<b>BMI</b>					
<18.5	none	3( 3.3)	83(91.2)	5(5.5)	0.183
18.5~23	19(4.8)	19( 4.8)	354(88.5)	8(2.0)	
23<	4(3.7)	3( 2.8)	98(90.7)	3(2.8)	

p-value by Pearson's  $\chi^2$ -test.

5.0%, 신문, 잡지로부터 얻는 경우가 3.0%로 교육수준에 따라 정보를 얻는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모든 항목에서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주변 사람들인 친구나 동료를 통해 정보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아직 구전에 의한 홍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외식업소에 대한 정보원으로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얻는다'는 경우가 김희선 등(2001)의 연구에서는 78.2%, 김석영 등(2002)의 연구에서는 80.7%라고 보고된 바 있는데 음식점은 흔히 말하는 '입소문이 나아 장사가 잘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밖의 연구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고하여 고객의 긍정적인 평가와 추천이 다른 고객을 불러들이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일반적 특성과 외식시 업소 선택기준과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과 외식시 업소 선택 기준과의 관련성은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외식시 업소 선택기준이 "맛" 이라고 응답한 남성은 46.9%이고 여성은 63.8%로 나타났음을 미루어 볼 때 여성이 남성보다 외식시 업소 선택 기준으로 맛을 더 중요시 여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숙자(1989), 손경희 등(1988), 노정미(1989)등, 정은정(2000), 김희선 등(2001), 김석영 등(2002)이 식품선택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맛이라고 보고한 것과 일치하며, 문수재 등(1986)도 식품의 질적 요인으로 맛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했다. 또 Wakefield 등(1967), Cosper(1975), Allen 등(1970)도 외식시 음식선택은 기호가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 것은 맛

Table 7.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selection criteria of restaurant for eating out of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Prices	Taste	Atmosphere	Sanitation/clean	Image of restaurant	Convenience facilities	Service	etc	p-value
Sex									
Male	21(10.1)	97(46.9)	17( 8.2)	9(4.3)	24(11.6)	22(10.6)	13(6.3)	4(1.9)	0.001
Female	24(8.3)	185(63.8)	20( 6.9)	17(5.9)	20( 6.9)	9( 3.1)	9(3.1)	6(2.1)	
Age(years)									
<20	9(13.4)	32(47.8)	8(11.9)	3(4.5)	7(10.4)	4( 6.0)	2(3.0)	2(3.0)	0.001
21~30	30( 8.1)	229(61.7)	24( 6.5)	20(5.4)	27( 7.3)	16( 4.3)	19(5.1)	6(1.6)	
31<	6(10.2)	21(35.6)	5( 8.5)	3(5.1)	10(16.9)	11(18.6)	1(1.7)	2(3.4)	
Education									
High School	31( 8.8)	218(61.8)	20( 5.7)	23(6.5)	27( 7.6)	15( 4.2)	13(3.7)	6(1.7)	0.000
College≤	14( 9.7)	64(44.4)	17(11.8)	3(2.1)	17(11.8)	16(11.1)	9(6.3)	4(2.8)	
Income(1,000won/mo)									
<800	20(10.8)	112(60.5)	10( 5.4)	13(7.0)	14( 7.6)	6( 3.2)	8(4.3)	2(1.1)	0.445
800~1,400	16( 7.3)	124(56.4)	19( 8.6)	10(4.5)	21( 9.5)	17( 7.7)	8(3.6)	5(2.3)	
1,400≤	7( 9.1)	40(51.9)	6( 7.8)	2(2.6)	8(10.4)	8(10.4)	5(6.5)	1(1.3)	
Marital status									
Unmarried	36( 9.2)	235(59.8)	26( 6.6)	19(4.8)	32( 8.1)	18( 4.6)	19(4.8)	8(2.0)	0.030
Married	9( 8.7)	47(45.2)	11(10.6)	7(6.7)	12(11.5)	13(12.5)	3(2.9)	2(1.9)	
Self-assessment of health									
Healthy	16( 8.2)	109(55.6)	16( 8.2)	13(6.6)	19( 9.7)	8( 4.1)	10(5.1)	5(2.6)	0.745
Normal	27( 9.7)	155(56.0)	21( 7.6)	12(4.3)	23( 8.3)	22( 7.9)	12(4.3)	5(1.8)	
Weak	2( 8.3)	18(75.0)	none	1(4.2)	2( 8.3)	1( 4.2)	none	none	
BMI									
<18.5	6( 7.8)	54(70.1)	2( 2.6)	4(5.2)	7( 9.1)	1( 1.3)	1(1.3)	2(2.6)	0.451
18.5~23	31( 9.7)	169(53.1)	28( 8.8)	18(5.7)	26( 8.2)	25( 7.9)	15(4.7)	6(1.9)	
23<	7( 8.2)	48(56.5)	7( 8.2)	4(4.7)	8( 9.4)	4( 4.7)	5(5.9)	2(2.4)	

p-value by Pearson's  $\chi^2$  - test.



을 선택기준으로 하는 것과 일치되었다. 그 다음으로 남성의 경우 업소의 이미지(11.6%), 교통의 편리성(10.6%), 가격(10.1%), 분위기(8.2%), 서비스(6.3%), 위생(4.3%)순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의 경우 맛 다음으로 가격(8.3%), 분위기와 업소의 이미지(6.9%), 청결위생(5.9%)순으로 나타나, 남성들의 경우 업소의 이미지보다는 가격을 더 고려한다고 보고한 김희선 등(2001)의 연구 결과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연령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맛을 외식업소 선택시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있었는데 특히 21~30세에서 6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가격(8.1%), 업소의 이미지(7.3%) 순이었고, 20세 미만은 맛(47.8%), 가격(13.4%), 업소의 이미지(10.4%) 순으로 두 연령 군에서는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31세 이상에서는 맛(35.6%), 교통의 편리성(18.6%), 업소의 이미지(16.9%), 가격(10.2%) 순으로 다른 연령과 마찬가지로 맛이 가장 높긴 하지만 맛보다 교통이나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시함을 보여주었다. 교육정도에서는 맛이 고등학교 졸업자(61.8%), 대학졸업자(44.4%)로 고등학교 졸업자는 거의 맛이 선택기준이 되었으며, 가격(8.8%)이 그 다음 순인 반면 대학졸업자는 맛도 중요하지만 분위기(11.8%), 업소의 이미지(11.8%), 교통의 편리성(11.1%), 가격(9.7%)순으로 여러 요소를 다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정도에 따라 유의한(p<0.01) 차이를 보였다. 결혼 여부는 미혼(59.8

%), 기혼(45.2%) 다 맛이 첫 번째 선택기준이 됨을 보여주었고, 그 다음으로 미혼은 가격(9.2%), 업소의 이미지(8.1%)로 나타난 반면, 기혼은 교통의 편리성(12.5%), 업소의 이미지(11.5%), 분위기(10.6%), 가격(8.7%)순으로 가격보다 업소 이미지나 분위기를 더 선택의 고려 대상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본인이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와 체질량지수(BMI)가 체중부족인 경우는 맛이 업소 선택기준에서 각각 75.0%와 70.1%로 가장 높았으며 허약하다고 한 경우는 분위기나 서비스는 전혀 선택의 고려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식욕부진으로 인해 맛만을 선택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8. 일반적 특성과 외식시 주로 방문하는 식당의 종류와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과 외식시 주로 방문하는 식당의 종류와의 관련성은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다. 외식시 주로 방문하는 식당의 종류는 모든 항목에서 한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였는데 남성은 79.1%로 여성 69.7%보다 더 높아 남자들이 더 한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이런 경향은 노정미 등(1989)이 가족 외식시 주로 방문하는 식당의 종류로서 한식이 가장 많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연령에서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한식을 선호하여 31세 이상은 78.6%이고, 21~

**Table 8.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kinds of visiting restaurant frequently of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Korean food	Japanese food	Western food	Chinese food	Flour-based meals food	Fast food	Family restaurant	Hotel restaurant	p-value
<b>Sex</b>									
Male	189(79.1)	2(0.8)	12(5.0)	9(3.8)	19( 7.9)	1( 0.4)	7(2.9)	none	0.002
Female	241(69.7)	2(0.6)	11(3.2)	9(2.6)	57(16.5)	17( 4.9)	7(2.0)	2(0.6)	
<b>Age(years)</b>									
<20	39(50.6)	none	4(5.2)	4(5.2)	18(23.4)	11(14.3)	1(1.3)	none	0.000
21~30	336(76.7)	3(0.7)	14(3.2)	12(2.7)	55(12.6)	7( 1.6)	9(2.1)	2(0.5)	
31<	55(78.6)	1(1.1)	5(7.1)	2(2.9)	3( 4.3)	none	4(5.7)	none	
<b>Education</b>									
High school	300(70.4)	2(0.5)	13(3.1)	14(3.3)	70(16.4)	17( 4.0)	8(1.9)	2(0.5)	0.000
College≤	130(81.8)	2(1.3)	10(6.3)	4(2.5)	6( 3.8)	1( 0.6)	6(3.8)	none	
<b>Income(1,000won/mo)</b>									
<800	156(68.4)	1(0.4)	4(1.8)	7(3.1)	43(18.9)	11( 4.8)	5(2.2)	1(0.4)	0.005
800~1,400	191(76.1)	1(0.4)	14(5.6)	10(4.0)	26(10.4)	4( 1.6)	4(1.6)	1(0.4)	
1,400≤	71(80.7)	2(2.3)	4(4.5)	none	6( 6.8)	1( 1.1)	4(4.5)	none	
<b>Martial status</b>									
Unmarried	329(71.1)	3(0.6)	16(3.5)	16(3.5)	71(15.3)	18( 3.9)	9(1.9)	1(0.2)	0.003
Married	101(82.8)	1(0.8)	7(5.7)	2(1.6)	5( 4.1)	none	5(4.1)	1(0.8)	

Table 8. Continued

General characteristics	Korean food	Japanese food	Western food	Chinese food	Flour-based meals food	Fast food	Family restaurant	Hotel restaurant	p-value
Self-assessment of health									
Healthy	165(71.4)	none	9(3.9)	10(4.3)	30(13.0)	11(4.8)	6(2.6)	none	0.244
Normal	247(75.5)	3(0.9)	14(4.3)	7(2.1)	40(12.2)	6(1.8)	8(2.4)	2(0.6)	
Weak	18(66.7)	1(3.7)	none	1(3.7)	6(22.2)	1(3.7)	none	none	
BMI									
<18.5	62(70.5)	1(1.1)	2(2.3)	2(2.3)	16(18.2)	2(2.3)	1(1.1)	2(2.3)	0.051
18.5~23	272(74.4)	2(0.5)	12(3.3)	13(3.6)	43(11.8)	14(3.8)	8(2.2)	none	
23<	77(73.3)	1(1.0)	8(7.6)	3(2.9)	12(11.4)	none	4(3.8)	none	

p-value by Pearson's  $\chi^2$  - test.

Table 9. The relationship between general characteristics and traffic means for eating out of the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Car	Taxi	Bus	Walking	Subway	etc	p-value
Sex							
Male	97(39.3)	14( 5.7)	22( 8.9)	102(41.3)	9(3.6)	3(1.2)	0.000
Female	52(14.8)	24( 6.8)	70(19.9)	194(55.1)	6(1.7)	6(1.7)	
Age(years)							
<20	5( 6.5)	1( 1.3)	12(15.6)	56(72.7)	1(1.3)	2(2.6)	0.000
21~30	103(22.9)	29( 6.4)	76(16.9)	225(50.0)	12(2.7)	5(1.1)	
31<	41(56.9)	8(11.1)	4( 5.6)	15(20.8)	2(2.8)	2(2.8)	
Education							
High school	79(18.2)	25( 5.8)	79(18.2)	241(55.5)	5(1.2)	5(1.2)	0.000
College≤	70(42.4)	13( 7.9)	13( 7.9)	55(33.3)	10(6.1)	4(2.4)	
Income(1,000won/mo)							
<800	29(12.6)	9( 3.9)	42(18.3)	144(62.6)	3(1.3)	3(1.3)	0.000
800~1,400	68(26.4)	20( 7.8)	45(17.4)	115(44.6)	5(1.9)	5(1.9)	
1,400≤	46(49.5)	8( 8.6)	4( 4.3)	30(32.3)	4(4.3)	1(1.1)	
Marital status							
Unmarried	76(16.1)	27( 5.7)	81(17.1)	271(57.3)	12(2.5)	6(1.3)	0.000
Married	73(57.9)	11( 8.7)	11( 8.7)	25(19.8)	3(2.4)	3(2.4)	
Self-assessment of health							
Healthy	50(21.3)	22( 9.4)	28(11.9)	128(54.5)	5(2.1)	2(0.9)	0.070
Normal	90(26.9)	15( 4.5)	59(17.6)	156(46.6)	8(2.4)	7(2.1)	
Weak	9(31.0)	1( 3.4)	5(17.2)	12(41.4)	2(6.9)	0( 0)	
BMI							
<18.5	11(12.4)	9(10.1)	18(20.2)	50(56.2)	1(1.1)	0( 0)	0.002
18.5~23	94(24.9)	19( 5.0)	55(14.6)	192(50.9)	10(2.7)	7(1.9)	
23<	40(38.1)	10( 9.5)	14(13.3)	36(34.3)	3(1.9)	2(1.9)	

p-value by Pearson's  $\chi^2$  - test.

30세는 76.7%, 20세 미만에서는 일반적 특성 중 가장 낮은 50.6%순으로 나타났으며, 20세 미만에서는 그 다음으로 분식업소(23.4%), 패스트푸드(14.3%)를 이용하였고, 일식은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 $p<0.000$ ). 교육수준에서도 한식 선호가 대학졸업 이상의 경우(81.8%)가 고졸자(70.4%)에 비해 높았고, 고졸자는 다음으로 분식(16.4%)인데 비해 대졸자는 양식(6.3%)으로 나타나 교육정도에 따른 유의한( $p<0.01$ ) 차이가 있었다. 한달 수입에 따라서는 한식이 140만원 이상이 가장 높았으며(80.7%), 80~140만원이 76.1%, 80만원 미만은 68.4%순이었고, 수입이 적은 경우 비교적 값이 싼 분식(18.9%)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 수입에 따라 선택하는 외식업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결혼여부에 있어서는 한식을 선호하는 기혼자가 82.8%로 미혼자(71.1%) 보다 많았으며, 미혼자의 경우 그 다음으로 분식(15.3%)으로 나타난 반면, 기혼자는 양식(5.7%)으로 나타났으며 패스트푸드는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와 체질량지수에 따라 주로 방문하는 식당의 종류와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9. 일반적 특성과 외식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의 관련성

일반적 특성과 외식시 이용하는 교통수단과의 관련성은 Table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성별에서 외식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는 도보가 가장 많아 여성(55.1%)이 남성(41.3%)보다 많았으며, 다음으로 자가용으로가 남성 39.3%로 여성 14.8%보다 유의하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00$ ). 한편, 버스는 여성(19.9%)이 남성(8.9%)보다 훨씬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세 미만은 다른 연령보다 도보(72.7%) 이용이 월등히 높았으며 다음으로 버스(15.6%)였고 자가용(6.5%) 이용은 낮은 편이었다. 21~30세에서는 도보(50.0%), 자가용(22.9%), 버스(16.9%)의 순이었으며, 31세 이상에서는 도보(20.8%)보다 자가용(56.9%) 이용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p<0.001$ ). 교육정도는 고졸자는 도보(55.5%)가 가장 많았으며, 자가용과 버스 이용은 각각 18.2%로 같았다. 대졸이상자는 자가용(42.4%) 이용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도보(33.3%), 택시와 버스는 7.9%로 같았으며 지하철(6.1%)도 많이 이용하였다. 월평균 수입은 수입이 많을수록 도보보다 자가용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1$ ). 결혼 여부는 미혼은 도보(57.3%), 버스(17.1%), 자가용(16.1%), 택시(5.7%)의 순이었고, 기혼은 자가용(57.9%)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도보(19.8%), 택시와 버스(8.7%)의 순으로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한( $P<0.01$ ) 차이를 보였다. 체질량지수가 23이상인 조사대상자의 경우 외식시 걸어서

외식을 가는 조사대상자는 34.3%였으며, 자가용을 이용해서 외식을 가는 사람이 조사대상자의 38.1%인 반면 정상범위 및 18.5 미만인 조사대상자의 경우 걸어서 외식을 가는 사람이 각각 50.9%, 56.2%로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었으며, 자가용을 이용해서 가는 경우는 각각 24.9%, 12.4%로 나타나 과체중인 사람들의 경우 정상체중인 사람이나 저체중인 사람들보다 활동량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다.

##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남·여 643명을 대상으로 하여 일반적 특성과 외식행동과의 관련성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외식 빈도는 여성보다 남성이, 대졸 이상인 조사대상자가 고졸인 조사대상자보다, 월소득 수준이 높은 조사 대상자가 월소득 수준이 낮은 조사 대상자보다 기혼보다 미혼인 조사대상자들의 외식빈도가 유의하게 ( $p<0.05$ ) 높았다.
2. 월평균 외식비는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수준이 낮은 조사대상자보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은 조사대상자들이 외식으로 인한 지출 경비가 유의하게 많은 반면 연령, 결혼 유무,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 및 체질량지수에 따라서는 월평균 외식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외식동기는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결혼상태, 체질량지수에 따라 유의한( $p<0.05$ ) 차이를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친구·동료와 어울리기 위해 외식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본인이 허약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도 건강식을 위해 외식을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없었다. 한편, 과체중인 조사대상자의 경우 공복을 채우기 위해 외식하는 경우가 정상체중 및 저체중인 사람보다 많았다.
4. 교육수준과 결혼 여부에 따라 외식에 관한 정보를 얻는 방법에 유의한( $p<0.05$ ) 차이가 있는 반면, 성별, 연령, 소득수준,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 및 BMI 정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조사대상자의 대다수가 외식에 관한 정보를 친구/동료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5. 외식 업소 선택시 조사대상자 기준은 조사대상자 대다수가 맛이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하였으나 성별, 연령, 교육수준, 결혼 여부에 따라 유의한( $p<0.05$ ) 차이가 있었다.
6. 외식시 주로 방문하는 식당의 종류와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와 체질량지수(BMI)를 제외한 성별을 포함한 모든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하게( $p<0.01$ ) 차이가 있었다.

7. 본인이 생각하는 건강상태를 제외한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소득수준, 결혼상태 및 체질량지수(BMI)에 따라 외식시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유의한( $P<0.01$ )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전반적으로 외식행태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새로운 외식분야 개척시 주 고객층의 일반적 특성 및 성향 분석을 통해 그들에게 맞는 경쟁력 있는 외식 개발 전략을 모색함으로써 외식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본 연구를 통해 외식시 음식선택기준으로 맛을 가장 중요시 한 것을 볼 때, 외식시 영양적으로 합리적이며 충분한 열량을 낼 수 있는 동시에 맛도 우수한 음식종류의 개발의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V. 문 헌

- 김두진 (1995) : 부산지역의 외식실태조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7(3): 239-249.
- 김태희 (2001) : 국내외 위탁급식산업의 현황과 전망. 국민영양 226:16-26.
- 모수미 (1986) : 외식산업의 발달이 국민영양 및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양학회지 19(2):120-128.
- 모수미 (1994). 한국의식문화 발달과정.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2):181.
- 손경희, 문수재, 李政後, 崔恩靜, 황혜선, 이상희 (1988) : 도시 주부의 식품소비 변화와 미래의 식생활향상을 위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6(4).
- 원용희 (1998) : 외식산업의 과제와 전략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논문집. 15:333-354.
- 황혜선 (1991) : 목포지역 대학생의 식생활 행동 및 영양실태조사. 한국영양학회지. 20(1):65-71.
- Ahn SJ (1989) : A study on the survey of the dining out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4(4):383-393.
- Allen DE, Patterson ZJ, Warren GL (1970) : Nutrition, Family Commensality and Academic performance. J Home Econ 62(5).
- Cosper BA (1975) : Food choices of women, Personal attitudinal and Motivational Factors. J.A.D.A.
- Diva S (1982) : Social and Cultural Perspectives in Nutrition. Prentice-Hall Inc.
- Jung EJ (2000) : A study on the dining-out consumption behaviors of college students in Cheju Do. Cheju National University masters degree thesis.
- Fetzer JN, Solt PF, Mckinney S (1985) : Typology of food preferences identified by nutrition food sort. J Am Diet A 85(8):961-965.
- Han MJ (1992) : A survey of college students behaviors on fast food restaurants in seoul area. Korean J Dietary Culture 7(2):91-96.
- Kim HS, Chung CE (2001) : A study on the eating out behavior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16(2):147-157.
- Kim SY, Kim JY (2002) : Restaurant Food Choice and Preferences of Salaried Employees in JinJu Classified by Age and Gender. Korean J Nutr 35(9): 996-1006.
- Kim HY, Cho SY, Ryu SH (2001) : A study on the customers' expectation & satisfaction for food and service quality in restaurants. Korean J Dietary Culture 16(4):330-340.
- Kwon SH, Cho KR, Yi BS (1999) : A study on the state of eating out of college student in Yeojoo of Kyeong-Ki Do. J Food & Nutrition, Hanyang Women's College 13:59-73.
- Lyu ES, Kwak TK (1989) : Consumer opinions on fast foods and foodservices-II. Noodle chain restaurants. Korean J Dietary Culture 4(3):237-243.
- Mo SM, Jeon MJ, Baek SK, Lee SK (1989), A secondary survey of fast food dining out behaviours-Focused on Youido apartment compound in Seoul. Korean J Dietary Culture. 4(1):83-94.
- Niels Christiansen et al (1977). Malnutrition, social environment and cognitive Development of colombian infants and preschools. Nutr Rep INTER 16(1):93-102.
- Park GS, Shin YJ (1996) : A study of dining out behaviours of businessmen in urban regions. Korean J Soc Food Sci 12(1):13-19.
- Roh JM, Yoo YS (1989) : A study on the survey of eating out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I).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2):65-74.
- Roh JM, Yoo YS (1989) : A study on the survey of eating out and food preference of college students in Seoul(II).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7(4):51-58.
- Ro HK (1999) : Factors in food selection and eating out

-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Korean J Dietary Culture* 14(3):241-249.
- Shannon BM, Paks SC (1980) : A Perspective on their nutritional impact. *J Am Dietet A* 76:242-247.
- Young CM, Lanforten TD (1987) : Effect of food preference on nutrition intake. *J Am Dietet A*, 33:98. URL address: <http://www.foodservice.co.kr>
- Yu CH (2002) : A review on the changes of lifestyle and the related nutritional problems in Korea. *Korean J Nutr* 35(1): 137-146.
- Wakefield LM, Merrow SB (1967) : Interrelationships between selected nutritional Clinical and Sociological Measurements of Preadolescent Children from independent Low Income Families. *Am J Cl Nut* 60(4).
- Ypeman AM, Vermeersch JA (1979) : Factors associated with children's food habits. *J Nutritional Education* 11(2): 72-76.
- (접수일: 2003년 10월 19일, 채택일: 2003년 11월 12일)